

NEWS LETTER

2019년 5월 20일 Vol. 343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법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5월 8일, 5층 대강당에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큰스님을 모신 가운데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300여 명의 교직원과 환우들이 참석했으며, 육법 공양과 함께 본원 1층 로비에서 환우들의 건강 발원을 기원하며 관불식을 진행했다.

지홍 큰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 세상의 평화와 공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처님을 만나고 귀의하며, 이웃과 자신의 삶 속에서 서로 상생을 통해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사회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전했으며, “어둡고 험난했던 지난날을 지우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어둠을 찬란하게 밝혀,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가 온 세상에 넘쳐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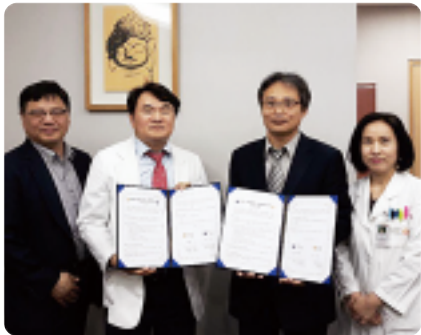
고양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8일 법무부 고양 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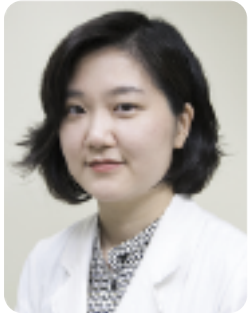
양 기관은 앞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의 의료지원,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신 제거 시술 지원, 정신질환자의 약물 및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의료지원을 통해 재범 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으며, 1호 대상으로 청력 문제 때문에 업무방해 전과를 갖고 있는 김 모(여·80)씨가 선정돼 보청기 지원을 받게 됐다.

이해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은 “가족의 방치, 경제적 어려움, 정신질환 등으로 죄를 짓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시의적절하고 장기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많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경과 박정이 교수,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연구자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박정이 교수는 최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에서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자상은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연구자들의 연구기반 진작과 연구 활성을 위한 것으로, 박 교수의 연구 주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와 파킨슨병 환자의 음식 분석’이 채택됐다. 이는 파킨슨병의 선행 증상에 해당하는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들 중 파킨슨병으로의 진행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에 해당한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는 관련 질환 연구 등 실제 임상에서 얻어진 연구 자료를 통해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와 희망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둔 학회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안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최근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올 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지침을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란 주로 4~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에 38℃ 이상의 고열과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출혈성 소인과 다발성 장기 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중증 감염성 질환을 말한다.

현재까지는 SFTS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방수칙으로는 활동 지역 주위 제초작업, 풀숲에서 용변 금지, 작업 시 긴팔, 긴 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작업 후 샤워 등 개인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진드기 흡혈 시無理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야외 활동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